

꼬마철학자 다니엘

알퐁스 도데 지음 / 이정림 옮김
범우사/A5신/258면/2500원

프랑스의 소설가 도데가 1868년에 발표한 처녀소설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부분적으로 그려놓은 감동적인 자서전적 작품이다.

프랑스 남부 랑그도끄 마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다니엘 에세뜨는,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하게 되자 가족과 함께 정든 집을 떠나 리옹에서 생활하게 된다. 출고 배고픈 날들이었지만, 다니엘은 순수한 감성과 형 자크에 대한 사랑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 꼬마철학자 다니엘이 고달픈 어린 시절을 거쳐 연극배우와 시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장편소설. '범우피닉스 문고' 13번째 권.

속담풀이

하동호 엮음
경원각/A5신/ 238면/2000원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우습고 재미있는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속담.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속담을 일생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디의 말보다도 정확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 뿐더러 조상의 오묘한 지혜에도 접할 수 있다.

'가는 날이 장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등 갖가지 속담의 뜻을 정확하게 풀이하여, 어린이들이 속담에 스며있는 지혜를 깨닫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한 책이다. 속담들의 머리글자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사전처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난 별이 되는 법을 알아요

유경환 지음
동화문학사/A5신/ 182면/2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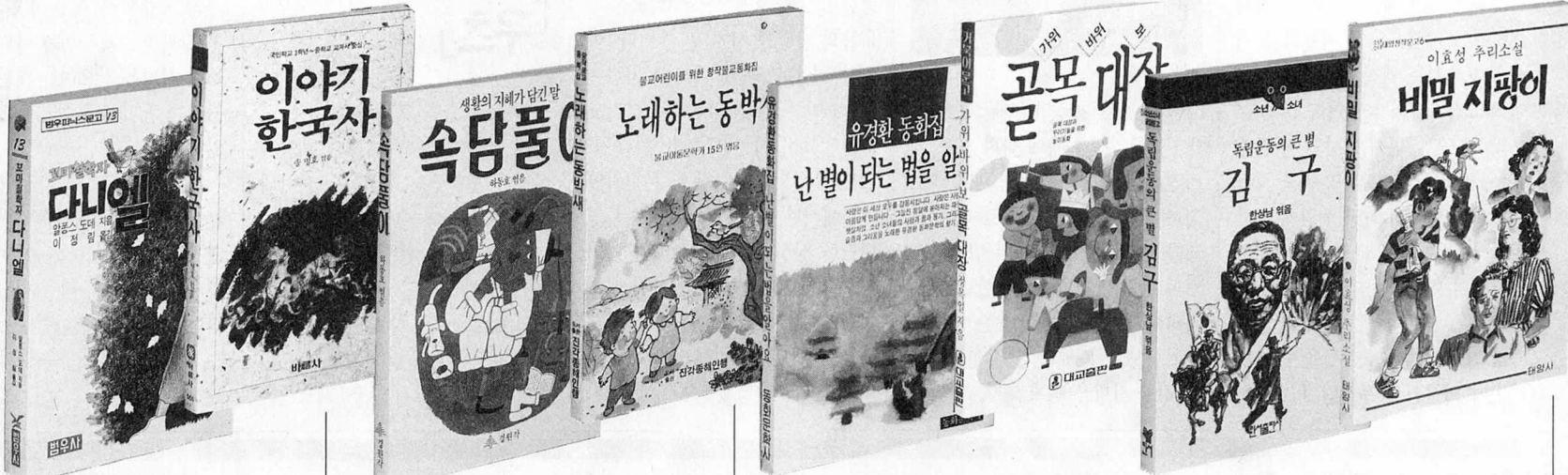
너와집 지붕의 오막살이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북남이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깊은 숲속에 혼자 남게 된다. 이십리나 떨어져 있는 산마을 사람들이 북남이를 걱정해서 함께 마을로 내려가 살자고 해도, 북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있는 산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사냥을 하며 혼자 깨끗하게 살아가던 북남이가 유일한 친구인 사슴과 나누는 우정을 중심으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서정적으로 그린 장편동화 「북남이와 북동이」를 비롯, 「잠박이」 「열려라 참깨」 「조각달과 천사」 등 모두 8편의 중단편을 모았다.

독립운동의 큰 별 김구

한상남 엮음
민서출판사/A5신/ 244면/2500원

황해도 해주 땅에서 서쪽으로 80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백운방 텃골에서 태어난 김구. 산골마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다른 어린이들과 다름없이 개구장이짓과 말썽을 일삼는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남달리 글공부를 좋아했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든 몸소 실천하는 정신을 갖고 있었다.

일제의 압정에 대항하여 조국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상해임시정부를 이끌며 갖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김구의 행적, 특히 대범하고 정의로우면서도 자상했던 그의 됃됨이를 흥미롭게 그렸다. 어린이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전기.



이야기 한국사

송명호 엮음
바른사/A5신/ 288/2500원

5천여년의 긴 역사의 흐름을 신화와 전설에서부터 정치 경제에 이르기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어린이 역사책.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굴곡과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활동을 흥미롭게 엮어 내려가고있다. 국민학교 4·5·6학년과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한 어린이의 교양 뿐 아니라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록으로 역대왕조계보, 국사연표, 국보·보물 및 사적일람표를 수록해 어린이들이 직접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닐 수 있게끔 안내했다.

노래하는 동박새

불교아동문학가 15인 엮음
진각종행/A5신/ 214면/1500원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엮은 창작불교동화집.

부처님의 설법이라면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깨칠 수 있음을 강조한 동화들이 실려있다. 인간의 헛된 욕심을 이야기한 「할아버지의 흰 고무신」(박춘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모두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부처의 존재를 말한 「부처님 계신 곳」(이슬기), 절경이씨의 끈질긴 생명력을 그린 「절경이 씨」(신현덕) 등 모두 17편의 동화들이 수록돼 있다. 그동안 「진각종행」에 연계되었던 작품들로, 발간 150호를 기념해 엮은 동화집.

골목대장

정목일 지음
대교출판/A5신/ 176면/2000원

구슬치기, 새총놀이, 기차놀이, 팽이치기, 자치기, 깡통치기, 굴러쇠돌리기, 닭싸움, 말타기, 공기놀이... 지금은 사라져 찾아 보기 힘들지만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놀이들이다.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놀이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꾸며진 이 책은, 골목에서 뛰어 노는 어린이들이 각각 어떻게 놀이하는지를 재미있게 보여 준다. 모두 29가지의 놀이를 중심으로 놀이기구, 놀이방법을 친절하게 소개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시금 골목놀이의 흥을 알려주고 전승시키는 것이 바로 민족문화의 전승임을 일깨우는 이색 동화집.

비밀 지팡이

이효성 지음
태양사/A5신/ 240면/2500원

부모를 잃고 외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방식이와 방실이 남매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앞날이 캄캄해진다. 할아버지가 두 남매를 위해 남겨놓은 막대한 금액의 예금통장이 할아버지의 하얀 지팡이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지만, 며칠 전에 방식이가 할아버지 몰래 지팡이를 갖고 산에 올랐다가 잃어버리고 만 뒤였다. 명탐정을 꿈꾸는 친구 바로와 함께 방식이는 산에서 잃어버린 지팡이를 찾아내지만 그 속에는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았다. 예금통장은 어디 있을까? 하얀 지팡이의 비밀은 무엇일까? 숨겨진 보물을 찾아다니는 어린이들의 모험을 그린 장편 추리소설.

그림 속의 파란단추

김병규 지음

한국일보사/A5신/238면/2500원

198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소년한국일보에 연재한 「그림 속의 아이」의 내용 일부를 다시 손질하고 제목을 바꿔 펴낸 장편 및 단편동화 모음.

주인공 동이와 새치의 소중한 우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동이에게 늘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개성이 강하고 당당하면서도 책임감이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 뿐 아니라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운 작품이다. 장편 「그림 속의 단추」와 함께 단편 「춤추는 눈사람」「굴뚝새의 죽음」「다섯 게으름장이가 사는 마을」「하얀 새」「희망을 파는 자동 판매기」를 수록했다.

두레박으로 퍼올린 이야기

강추애 지음

아동문예/A5신/212면/2200원

볼품없는 외모를 비판하는 새끼개미의 상황을 통해 자신이 타고난 신체적 조건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일깨운 「막치의 꿈」, 오해를 딛고 친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정을 그린 「저 창밖에 무엇이 있을까?」,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외박이 스님과 함께 생활하던 동자스님이 낯선 아저씨를 따라 세상으로 나가 안락한 생활을 누리지만 결국 그리운 암자로 되돌아 온다는 이야기 「흰구름 쉬어가는 집」 등 따뜻한 정감과 섬세한 서정이 넘치는 18편의 단편동화들을 수록했다.

우리들도 사람이야

류근원 지음

대일출판사/A5신/204면/2500원

산 속으로 한참 들어가야 나타나는 외딴 집. 무성한 잡초로 뒤덮여 대낮에도 으스스한 집에 이사는 노부부가 이곳을 지체부자유아들을 위한 안식처 「희망의 집」으로 꾸민다. 마을에서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어른들이 있는가하면, 앓은뱅이·곱사등이·절름발이 아이들과는 마주치기도 싫어하던 동네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편견을 버리고 우정을 가꿔나가는 과정을 그린 「우리들도 사람이야」를 비롯, 「아름다운 오해」「아름다운 교실」「꽃꽃 반지」「우리들도 사람이야」「꽃피 삼총사」등 철학이 깃들여 있는 동화 16편을 수록했다.

털보네 가게

차원재 지음

효성사/A5신/228면/2200원

사람과 자동차가 홍수처럼 밀려다니는 청계천의 작은 구멍가게 사장 털보아저씨, 할머니 손님이 가져온 먼지 낀 전기 밥솥, 젊은 아주머니가 가져온 전기 믹서에서부터 꼬마들의 무선조종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냐 고치는 털보아저씨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인물이자 과학선생님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고장난 물건들을 고쳐가며, 발명왕을 꿈꾸는 꼬마손님들에게 과학의 진리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털보아저씨 이야기 「털보네 가게」를 비롯해 「해를 기르는 아이들」「청소원 아버지」「로켓트왕 한국인」「성실한 거울」 등을 수록한 창작동화집.



바닷가 아이들

권정생 지음

창작과 비평사/A5신/252면/2200원

조그만 섬마을의 소년 동수는 어느날 외진 바닷가에 나갔다가 낚선 사내 아이를 발견한다. 황해도 해주에 살고 있다는 그 아이는 아버지 몰래 거룻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다가 방향을 잃고 남쪽으로 떠내려오게 된 것이다. 간첩신고를 하겠다는 동수와 태진이는 잠시 실랑이를 벌이지만 이내 친구가 되어 신나게 논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친구를 위해 동수는 어머니 몰래 갖고 나온 미숫가루며 마실물 등을 챙겨 보내고, 둘은 통일이 되는 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바닷가 아이들」과 함께 14편의 토속미 넘치는 창작동화들을 수록했다. '창비아동문고' 106번째 권.

꿈을 따라가는 길

한국아동문학회 엮음

정원/A5신/180면/3300원

한국아동문학회 회원들의 우수작을 골라 수록한 창작동화집.

「지난번 공휴일」(고계영) 「윤이의 야영생활」(김선태) 「선물주는 날」(김영자) 「바람과 구름과 달님」(김영훈) 등 다양한 작품세계를 맛볼 수 있는 단편동화들이 수록돼 있다. 집에서 기르던 새를 잃고 낙심하던 하영이가 구두를 고치러 수선가게에 갔다가 그곳에서 십자매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 「구두방 아저씨와 십자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던 늑대와 여우의 어리석음을 그린 「늑은 여우의 눈물」 등 22편의 동화를 실었다.

사도 베드로

배희길 지음

성바오로출판사/A5신/160면/1500원

예수의 제자였으며, 예수 승천 후 갖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의 행적을 그린 성경만화.

한날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베푸는 놀라운 기적, 초대교회의 생활,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과 로마인의 박해, 네로의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난 베드로가 자기 대신 다시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해 로마로 돌아가시는 예수를 길 위에서 만난 뒤 로마로 발길을 되돌려 십자가에 거꾸로 못박혀 순교하기까지의 과정을 만화로 꾸며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보고 읽을 수 있게 했다.

재미난 이야기글 쓰기

최근희 지음

경원각/A5신/174면/1500원

어린이 스스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여러가지 예문을 통해 기초부터 안내했다.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초지식, 즉 길가에서 텅구는 작은 돌맹이와 나뭇잎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찰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찾아낸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구상하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소개했다. 전체 내용을 이야기의 소재 및 범위, 이야기 쓰기의 가치와 실제로 나누어 우리 식구 이야기나 이웃, 동식물, 자연풍경, 상상의 이야기를 쓰는 법을 알아봤다. '한국글짓기지도회 총서' 아홉 번째 권.